

15분 모의고사 6회 정답 및 해설

(0909 모의평가)

문법

1.㉔ 2.㉑

1. 어휘·어법 (어미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㉔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㉑의 경우 어미 앞의 '빌리다'의 주어도 '동수'이고, 어미 뒤의 '예약을 하다'의 주어도 '동수'이다. ㉒의 경우 어미 앞의 '만나다'의 주어도 '영희'이고, 어미 뒤의 '돌아가다'의 주어도 '영희'이다. ㉑과 ㉒의 두 문장은 어미 앞뒤의 주어'가 모두 같은 문장들이다. ㉔의 논리에 따르면,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면 '-러'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가 쓰인 ㉑, ㉒ 두 문장 역시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므로 ㉔의 선택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㉑에서 '-려고', '-고자'가 쓰이지 않은 것은 ㉑에 쓰인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㉑의 문장은 구어 상황의 청유형 문장이다. ㉒에서 '-러'만 쓰이지 않고 있는데, 책을 빌릴 의도만 있고 빌리기 위한 '이동'의 의미 요소는 담겨 있지 않다. ㉓의 문장처럼 이동의 의미 요소가 담긴 '빌리러 가다'가 '-러'의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는 탐구이다. ㉓ ㉓은 평서문에서, ㉒은 부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㉔은 어미가 문장 중간에, ㉑은 문장 끝 부분에 어미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구사)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말과 말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선택 제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말들의 결합 양상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취지이다. '결론'은 '내리다', '짓다'와 결합하고,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은 '맺다'와 가장 잘 어울린다. '결정'은 '하다', '내리다' 등과 결합하지만, '맺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 제약을 가장 잘 고려한 어휘 선택은 ㉑이다.

[답] ㉑

[오답피하기] ㉒ '결정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㉓ '결론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㉔ '결론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㉕ '결말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독서

3.㉑ 4.㉒ 5.㉕ 6.㉕

[3-6] 예술,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한 바쟁의 영화관'

지문해설 :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을 밀도 있게 그린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리얼리즘적 본질을 구현하는 영화가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바쟁의 영화관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는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바쟁의 영화관

3.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되도록 영화에 과도한 편집을 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답] ㉑

[오답피하기] ㉑ 바쟁은 조형 예술의 역사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되어 변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㉒ 회화보다 사진이 더 현실을 정확히 재현한 것이고,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것으로 본다. ㉔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욱 닮게 그려낼 수 있다. ㉕ 사진의 등장으로 회화는 복제의 욕망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4.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리얼리즘 영화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이다.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예술 장르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이며, 현실과 최대한 닮은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곧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㉔의 '현실의 참모습'은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넷과 그 의미가 다르다. ㉑, ㉒, ㉓, ㉕은 현실 그 자체라기 보다는 현실과 꼭 닮게 재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답] ㉑

5.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바쟁의 영화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그는 영화의 리얼리즘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할 것이고, 과도한 편집이나 현실에 대한 무리한

조작을 삼가게 될 것이다. 또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지어볼 때, ⑤의 화면 속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바쟁의 영화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리얼리즘 영화는 과도한 편집을 자제한다. ②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③ 기교를 부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리얼리즘 영화관이다. ④ 리얼리즘 영화 기법에서는 단일한 솟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6. 어휘 어법(단어의 구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파생어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미사를 덧붙여 만들기도 하고, 접미사 뒤에 어근을 이어서 만들기도 한다. '믿음'은 '믿다'의 '믿-'이라는 동사 어근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⑤의 '달리기'가 '달리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달리-'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를 덧붙여 만든 말이므로 '믿음'과 그 구성이 같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길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길-'에 접미사 '-이'가 붙음. ② '기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기쁘-'에 명사형 접미사 '-ㅁ'이 붙음. ③ '털'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보'가 붙음. ④ '오뎅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오뎅-'에 접미사 '-이'가 붙음

문 학

7.② 8.① 9.④ 10.⑤

[7-10] 고전소설, 작가 미상, '박홍보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전체적으로 악한 놀부가 벌을 받고 착한 흥부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형 소설이지만, 작품의 상당 부분은 착한 흥부가 형에게 박대 받고 가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단한 흥부의 삶은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부유한 놀부의 삶은 풍자와 야유로 표현되어 대중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장면 장면으로 이어지는 희극적 성격이 강한데, 이는 이 작품이 당초에 판소리의 각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쓰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장면은 흥보가 환곡을 얻어 생활하는 장면, 매품을 팔러 가기 전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를 묻는 장면 등이다.

[주제] 흥보와 흥보 가족의 가난한 생활과 해학

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담긴 소설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론해내는 문제이다.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자 아이들은 별 때처럼 모여들어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아이들은 흥보에게 '풍안(안경)', '송아지',

'양피 조끼, 장도 비단 꽃신' 등을 사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아이들이 풍안과 양피 조끼 등의 신문물이나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의 죄로 매'를 맞는 상황이 나오므로, 부자가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상은 이끌어내기 어렵다. ③ 흥보의 마누라는 나라의 곡식인 환곡미를 당장은 빌려 먹더라도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 없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렸을 것이라는 추론은 하기 어렵다. ④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파는 상황은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⑤ 흥보가 놀보 집에 다녀온 후 그야말로 다양한 품을 팔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게 되는 상황은 흥보가 노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8.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서는 자신의 불기가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데라도 구실이 있다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불기'의 구실을 열거하고 있다. 흥보가 떠올리는 장면이 다양하다 하겠으나, 이것을 '빠른 시선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흥보는 [A]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긴장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하니, ~해 볼까'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불기'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삼정승', '양국대장', '각읍 수령' 등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를 상상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흥보 자신의 궁한 신세를 부각시키게 된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9.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답지들도 그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의 경우에는 흥보 마누라가 '목숨' 즉 운명 대로 살고 '남의 죄로 매'는 일은 하지 말자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드러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아자씨도 야속하다'에는 '시아주버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의 설움'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② '속이 매워 못 들었네'에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장부의 허물이라'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③ '몽둥이 서넛'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님께로 떠넘기세'라 하여 형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요런 몹쓸 일'이라 하여, 아버가 매를 맞으러 간다는데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는 자식들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많이 사다 주마'라 하여 자식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아버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어휘·어법(관용적 표현)

정답해설 : 자식 한 놈이 '송아지'를 사달랬더니, 흥보는 자식이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식을 칭찬하지만, 자식은 '송아지'를 불에 구워 먹겠다고 하여 흥보를 실망시킨다. '송아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흥보는 살림 밑천으로 보는 반면 자식은 식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 성어는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 위에서 잠자면서 다른 꿈을 꿈)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같은 비용이 든다면 더 나은 것을 고르고 싶다는 뜻.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②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답을 함.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함. ④ 매우 분주함.